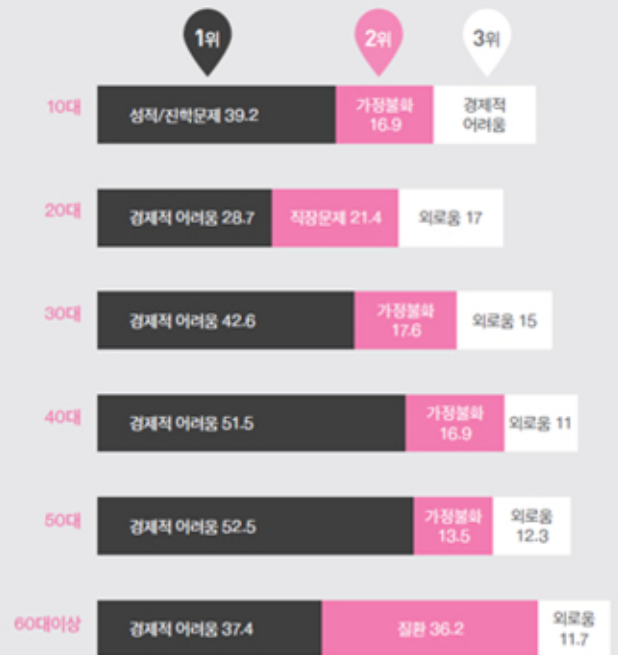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빈곤' 이라는 내전 중

한국의 빈곤율을 OECD국가 중 6위.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들 중 20%에 이르는 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의 자살충동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입니다. 우리는 ‘빈곤’ 이라는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생활, 시작해야 합니다!

심각한 빈곤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은 GDP 대비 9.3%. OECD평균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충분한 공공복지지출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살충동 원인 (2012,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빈곤은 게으름이나 나태에 의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만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적 결과물입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바꿔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1. 최저생계비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빈곤 기준선을 낮춥니다. 인간다운 삶의 질로 최저생계비를 올립시다!

2.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본인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가족 중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지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책임을 가난한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3. 정부는 빈곤대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기초법을 해체하려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
빈곤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장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나라 복지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